

봉제용어의 이해 - 5

·시임[시접/솔기, seam]

옷감의 부분과 부분을 이을 때 생기는 솔기

또는 그 솔기가 접혀 들어간 부분인 시접. 이음선의 위치, 안감, 심감의 유무, 바느질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의 솔기가 있다.

·시임 퍼커링[솔기울이, seam puckering]

바느질 땀 주변에 다소 규칙적인 꼴로 생긴 연속적인 주름

·시임 활탈[시접/솔기빠짐, seam slippage]

바느질 땀에 장력이 걸렸을 때, 그 부분의 구성사가 움직여서 심이 벌어지거나 심이 빠지는 현상

·싱[심, interlining]

양복의 어깨, 가슴, 깃 등을 뽀뽀하게 하려고 특별히 넣는 형겔

·아가리가다[숏은 어깨]

어깨 모양이 올라간 것

·아고쿠(구)세[목둘레선줄임/목둘레선 다트, neckline dart, gorge cut]

목둘레 넣은 다트

·아나이토[단춧구멍실]

단춧구멍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봉실

·아나카가리[단춧구멍박기, buttonhole stitch]

단춧구멍이나 끈이 통하는 구멍을 실로 꿰매어 박는 것. 버튼홀 스티치

·아마부타[겉덮개, flap]

주머니의 입구를 덮는 덮개. 신사복이나 여성복에 많이 쓰인다.

·아시쿠비마와리[발목둘레, ankle round]

긴 바지에서 발목 부위에 오는 바지 밑단의 치수

·아야[능직겔]

옷감의 무늬가 능직겔로 된 것

·아와세 누이[맞춰 박기]

두 장의 천을 합쳐서 박는 것. 겹감과 안감을 같이 박는 것도 포함한다

·아이오바[-춘추 코트, spring coat]

봄 가을의 코트

·아이지루시[실표 뜨기/겹뜨기]

두 겹이나 두 겹 이상의 천에 바느질 선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깊게 흡질하여 실을 자르고 표를 하여 두는 일

·아키[(앞)트기/(앞)트임, (front) placket]

옷을 입고 벗기에 편리하도록 트는 것

·아키미세[민트기/민트임, imitation vent]

재킷의 소매부리 바깥쪽에 솔기를 트지 않고 터진 것 같이 보이게 하는 것

·아테(누노)[보강천]

보강하기 위하여 대는 천

·야마소데[옷소매, top sleeve]

위쪽 소매

·야마하기[세모천(대기)]

바지의 뒷단 상단에 이어 붙이는 천. 중앙 솔기의 윗부분이 산 모양으로 높게 된 천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어 붙이는 것

·양세버런스[(천)을 끊기기, yarn severance]

바늘이나 톱니에 의하여 천의 올이 절단되는 것

·어소트[구색 갖추기, assortment]

제품(의류)을 출하할 때나 진열할 때에 스타일, 색상, 소재 따위의 디자인이나 치수(크기)별로 구분하여 만든 하나의 포장 또는 진열의 단위

·에리(깃, collar)

옷의 목 주위의 여미는 부분이나 목 주위에 붙어 있는 부분

·에리구리[목둘레선, neck line]

앞길과 뒷길의 깃 붙이는 부분

깃을 붙이지 않는 경우는 네크라인을 가리킨다.

·에리나시[민깃, collar]

칼라가 없는 옷

·에리누이[깃 박음, stitching]

표면을 장식하기 위한 바느질

·에리도(토)마리[깃끝, lapel point]

깃의 접힌 부분이 끝나는 지점

·에리마쓰리[깃감침, front gorge]

신사복 상의의 깃 뒤쪽을 감치는 일

·에리미쓰마쓰리[깃고대 감침, back gorge]

저고리 등판 깃고대를 감침하는 것

·에리센[깃 선, neck line]

깃이 달리는 목둘레선

·에리쓰리[걸고리, hanger loop]

옷을 걸기게 편하도록 신사복이나 재킷 등에 붙인 고리 옷을 걸어 둘 때 쓰는
칼라 한가운데 부착된 고리

·에리쓰케[깃달기 collar sewing, collar attaching]

깃을 옷웃에 달아 붙이는 일

·에리아시[깃띠, collar band, neck band]

옷깃을 높이는 단

·에리오모테[겉깃(감)]

겉깃. 넓게는 깃의 겉면에 나오는 천을 가리킨다.

·에리오사에[깃단눌러박기]

옷의 깃단을 이어 박은 것

·에리우라[밑깃(감)]

밑깃. 넓게는 깃의 뒤쪽으로 대는 천을 가리킨다

·에리지누이[깃판박기, collar sewing]

옷깃의 모양을 만드는 박음질

·에리코시[깃운도, collar stand]

깃 꺾임의 안쪽 부분의 높이(목뒤에 닿는 깃의 높이)

·에리키자미[깃아귀]

신사복 따위의 옷깃에서 위부분(칼라)과 아랫부분(길깃)이 구분되는 곳으로
아귀가 진 곳

·에리하시[깃끝, collar edge]

깃의 끝 부분

·에리후세[깃눌러박기]

깃솔기를 옆에서 박는 것

·에지피니시[갓박기, edge finish]

천의 끝부분을 마무리 짓는 박음질

·오가미아와세[맞여밈]

옷옷 따위에서 앞길의 좌우를 겹치지 않고 맞붙인 것

·오가미히다[맞주름, inverted pleats]

서로 마주보며 그 사이의 천이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의 주름.

움직이기에 편하여 치마(인버티드 스커트)에 많이 쓰인다.

이를 뒤집어 본 것이 박스 플리트(box pleats)다

·오너먼트스티치(ornament stitch)[장식박기]

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바느질

·오리메[접음선/접금, crease line]

옷을 접는 선

·오리시로[접단, cuffs, hem turn-up]

밑단 또는 소매부리 따위의 접어 올린 부분 또는 그 시접 분량

·오리에리[접깃, rolled collar]

뒷면에서 앞에 겹쳐서 접어 넘긴 깃의 총칭

·오리카에시[단 접기]

바지 밑단이나 소맷부리 따위를 접어 올리는 것

·오모테[겉(감)]

옷감의 겉쪽

·오모테지[겉감, outshell]

옷의 겉에 대는 감

·오버로크[휘감(치기)/푸서 박기/푸서 박음(overlock)]

특수 재봉기를 사용하여 옷감의 올이 풀리지 않게 휘감치며 박는 것

·오비[①허릿단 ②(허리)띠]

①허리에 대는 단. ②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않게 매는 허리띠

·오비시아가리센[바지허리 옷선]

바지허리 안을 씌워 완성된 옷솔기선

·오비우라[허리안(감)]

바지나 스커트의 허리 부분에 대는 안감

·오사에[노루발, presser foot]

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재봉틀에서 옷감을 눌러 주는 기구

·오사에도메네지[노루발 고정나사, presser foot set screw]

노루발을 고정시키는 나사

·오사에보[노루발 대, presser foot bar]

노루발을 낀대

·오사에보 데코[노루발 손잡이, presser foot handle]

노루발을 올리고 내리는 손잡이

·오사에 조절 네지[노루발 조절나사, presser foot regulator]

노루발을 조절하는 나사

·오쿠리[(재봉틀)톱니, feed dog]

재봉틀에서 옷감을 밀어내는 톱니판

·오쿠마쓰리[속감침]

겉단과 안단을 맞붙일 때 안감이 당기지 않게 안단에 1cm정도의 여유를 두고

감침질을 함. 신축성이 많은 옷감에 많이 쓰임.

재킷의 소매단과 도련안을 붙일 때 쓰임

·오키시미시이[숨겨 박기]

시접을 갈라서 겉에서 박은 바느질이나 입술 형태의 시접에 숨겨서 박은 바느질

·오토시아나[깃구멍/깃눈, decoration hole, dummy button hole]

신사복의 라펠 따위에 장식적으로 만든 단춧구멍.

실질적인 단춧구멍의 기능은 없다.

·오픈마커[옷본 그리기, open marker]

옷본(패턴)의 전수를 넣어 그린마커

·오픈 심[가름솔, open seam]

바느질감의 겉끼리 맞붙여 시침질한 다음 흠질이나 박음질 또는 재봉틀로 박아서 시접을 가른다.